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

장각자¹, 김나연², 김미현^{3*}

¹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연구원, ²온세미로 심리상담연구소, ³카페밴트 심리상담소장

The Effects of Civic Consciousness and Sense of Community on Happiness in Adolescent: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sision

Kak-Ja Jang¹, Na-Yeon Kim², Mi-Hyun Kim^{3*}

¹Hanse University School Counseling Center Researcher

²Onsemiro Psychological Counseling Research Institute

³Cafe Vant Counseling Center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 시민의식, 진로정체성과 행복감의 영향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분석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고등학생 3,037명 중 결측을 제외한 2,959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및 베이런과 케니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Sobel test 기법을 적용하여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행복감을 높여주었다. 둘째, 공동체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시민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의 부분 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키워드 : 고등학생, 공동체의식, 시민의식, 진로정체성, 행복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increase happiness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onsciousness, civic consciousness, career identity and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Data analysis used data from the '2020 Generation Z Teenage Value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mong the survey subjects, 2,959 out of 3,037 high school students who me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cluding missing, were sampled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5.0 program. The analysis method us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Bayron and Kenny's analysis method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nd applied Sobel test techniques to analyze indirect effects and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high school students' sense of community and citizenship increased their happiness. Second, career identit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happiness. Third, it show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hip and happiness. Based on thi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and practical programs to promote high school students' happiness.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 Sense of community, Civic consciousness, Career identity, Happiness

*Corresponding Author : Mi-Hyun Kim(jmes5023@naver.com)

Received July 3, 2023

Accepted August 20, 2023

Revised July 21, 2023

Published August 28, 2023

1. 서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과거나 현재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행복감은 인간이 가장 원하고 깊은 관심을 보이는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인생 목표로 간주되는 가치이다.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뚜렷하지 않으며 마음의 즐거움과 안정이라는 심리상태, 곧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을 지칭한다[1].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명예와 재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도구적 목표에 불과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2,3]. 우리나라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행복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4]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이 세운 인생 목표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해서 달성하는 산출물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인 행복 정도는 10점 만점에 7.01점을, 삶의 만족도는 6.59점을 받았으며, 이 점수는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평균 7.6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5].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감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2],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한층 끌어 올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대학 진학이라는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어 실제 행복 지수는 더 낮을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과 과외 및 학원에서 입시 준비로 늦은 밤까지 보내 개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삶을 대부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6]에서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행복감은 중학생 시절보다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 시절 행복감은 이후 청년기와 성인기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에 체감하는 행복감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된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7,8].

현재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 생활만족도 등의 단어와 함께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행복감으로 통일하여 보고자 한다. 고등학생의 행복감은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자 스스로 인지한 행복감을 말하고 사회와 문화적 맥락과 개인이 지닌 성격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3,5]. 고등학생의 행복감이란 본인의 밝은 미래와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행복감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과 행동 형성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이다.

고등학교 청소년의 행복감을 설명하는데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함을 볼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행복감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 지역사회요인, 학교 요인, 진로 관련 요인, 청소년활동 요인 등과 관련이 있으며[9-13], 우울, 자살 생각과 공격성 같은 변인이 유발될 가능성을 낮춘다[9,13]. 그리고 고등학생은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상호 교류하고 그 속에서 행복감을 찾고 인지하면서 서로 유대감 갖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지역사회요인인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은 그들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와 관계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청소년의 행복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여러 부분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공동체의식의 중요성과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13,14]. 공동체의식이란 사회구성원 간의 소속감과 대인관계 속에서의 감정, 같이 하고자 하는 헌신 속에서 서로의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15].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생활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과 그 안에서 구성원으로 갖춘 윤리의식, 가치관과 정서 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16].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17]에서 보면,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견인 작용을 함과 동시에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3]에서도 공동체의식이 높으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고등학생의 행복감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변인으로 시민의식을 들 수 있다. 시민의식은 청소년의 다양성 인정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요인이며, 이는 인생의 중요한 발달과정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인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18,19]. 시민의식이란 자원봉사, 참여, 시

민 모두를 위해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속에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20]. 시민의식의 하나인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써, 인간이 사람답게 존재하기 위한 일반적이면서 절대적인 권리이다[21]. 인권의 개념을 더 확대 해석하면 시민의식이고, 시민의식은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공정하게 존중해주는 인권으로써 자신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 평등한 사회이며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결과, 권리보장과 인권감수성에 대한 인식인 시민의식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22], 시민의식이 행복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의 진로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민의식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결과, 시민의식은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 중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에서 Lee & Cho[3]은 시민의식이 높으면 행복감이 증진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고등학교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 존중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등의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앞날이 밝아져 행복감이 함양된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의 시민의식은 행복감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고, 진로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불확실한 진로를 결정하고 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에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정체성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진로정체성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고 진로정체성을 진로정체감과 직업 관련 영역과 관계된 자아정체감으로 개인의 직업에 대한 흥미, 목표, 적성으로 정의한다[23]. 고등학생의 진로정체성은 진로와 관련된 정체성을 의미하며,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정도와 진로에 관한 계획을 정립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24]. 이처럼 진로정체성은 자아정체감의 개념에서 발전하였으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직업의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진로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3,24,25].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Gong & Choi[26]의 결과에서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동체의식을 꼽고 있다. 이처럼 고등학생은 사회·정서적 지지 등을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받게 되면 진로정체성을 촉진하므로[27], 이러한 대인관계를 축으로 발달하는 공동체의식이 진로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영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연구한 Cha & Choi[28]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안정성과 목표 지향적성을 얻게 되는 진로정체감이 행복감을 증진하게 된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의 시민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평등의식은 자신의 잠재력을 찾고 미래를 예측하며 적극적으로 삶의 활로를 열어 능력을 고취시켜 바람직한 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한층 더 중요성이 부각 되는 시점이다. 초등학교의 성 평등의식과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29]에 의하면 성 평등의식이 진로 발달의 하위요인인 진로계획, 자아인식, 학업직업탐색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을 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는 시민의식이 진로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중학생의 행복감을 연구한 결과에서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은 진로정체성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밝히고 있다[3]. 즉,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및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정체성이 매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 및 시민의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진로정체성의 확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정체성이 높으면 행복감도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등학생이 갖추고 있는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은 진로정체성 정립을 도와주는 긍정요인으로 그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결음마 단계이다. 따라서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증진하는데 진로정체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변수인 공동체의식, 시민의식과 종속변수인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높여

청년과 장년 시기의 발달과정에 성공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맞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 및 시민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목적에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정체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문제 3〉 고등학생의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정체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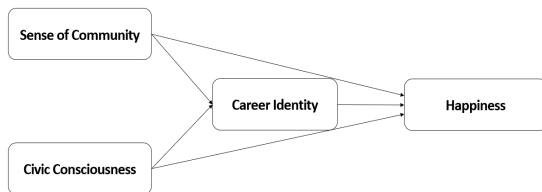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공동체의식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은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시민의식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은 매개할 것이다.

2.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2020)' 자료를 활용하였고, 조사에 응답한 고등학생 2,959명을 조

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생의 성별은 남학생(50.7%)의 비율이 여학생(49.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생활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50.8%, 학교생활 만족도는 높은 편에 속한 학생 비율이 55.7%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대체로 중간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0~10점 중 평균이 5.057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2.3 측정도구

2.3.1 종속변수: 행복감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이 조사한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2020)'에서 활용한 인생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측정한 3문항을 행복감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 문항 간 내적 신뢰도(Chronbach Alpha)는 .813로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공동체의식 및 시민의식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이 조사한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2020)'에서 활용한 국가와 사회관을 측정한 문항을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공동체의식 측정 문항은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시민의식 문항은 문항 간 상관계수가 .40 미만으로 내적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2문항을 제거하여 5문항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 문항 간 내적 신뢰도(Chronbach Alpha)는 각각 .811, .756으로 나타났다.

2.3.3 매개변수: 진로정체성

고등학생의 진로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이 조사한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2020)'에서 활용한 진로 및 직업관을 측정한 문항을 진로정체성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진로정체성 측정 문항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항 간 상관계수가 .40 미만으로 내적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1문항을 제거하여 3문항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

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정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 문항 간 내적 신뢰도(Chronbach Alpha)는 .714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31]의 3단계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와 다음과 같다. 먼저, 행복감의 평균(M=2.985)과 표준편차(sd=.625), 공동체의식의 평균(M=2.644)과 표준편차(sd=.513) 시민의식의 평균(M=2.668)과 표준편차(sd=.526), 진로정체성의 평균(M=3.081), 표준편차(sd=.554)로 나타났으며,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2와 4를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	Kurt
Happiness	1.00	4.00	2.985	.625	-.260	.103
Sense of Community	1.00	4.00	2.644	.513	-.297	.749
Civic Consciousness	1.00	4.00	2.668	.526	-.202	.622
Career Identity	1.00	4.00	3.081	.554	-.144	-.374

3.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결과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행복감과 공동체의식($r = .387, p < .01$), 시민의식($r = .271, p < .01$), 진로정체성($r = .397, p < .01$)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공동체의식은 시민의식($r = .520, p < .01$), 진로정체성($r = .150, p < .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시민의식은 진로정체성($r = .158, p < .01$)과 정(+)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Happiness	Sense of Community	Civic Consciousness	Career Identity
Happiness	1			
Sense of Community	.387**	1		
Civic Consciousness	.271**	.520**	1	
Career Identity	.397**	.150**	.158**	1

** $p < .01$.

3.4 매개효과 검증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31]가 제안한 매개효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 & Kenny[31]의 매개효과 3단계 회귀분석은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함께 투입되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변수 간 직접효과와 매개변수의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과 가족생활 및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 신뢰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3.4.1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공동체의식이 진로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Model 1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beta = -.055, p < .01$), 가족생활 만족도($\beta = .125, p < .001$), 학교생활 만족도($\beta = .193, p < .001$), 독립변수인 공동체의식($\beta = .096, p < .001$)은 각각 진로정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며 가족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공동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공동체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Model 2에서는 성별($\beta = .081$,

Table 3. The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career identity, happiness

Variable	Model 1 career Identity			Model 2 happiness			Model 3 happiness		
	B	β	t	B	β	t	B	β	t
Gender	-.060	-.055	-3.107**	.101	.081	5.663***	.117	.094	6.895***
Family life satisfaction	.102	.125	6.507***	.278	.301	19.353***	.250	.271	18.109***
School life satisfaction	.149	.193	9.907***	.327	.375	23.758***	.286	.328	21.435***
Social trust	-.007	-.024	-1.269	.030	.097	6.245***	.032	.103	6.939***
Sense of Community	.104	.096	4.984***	.098	.081	5.155***	.070	.057	3.824***
Career Identity							.273	.242	17.025***
F	59.213***			397.609***			412.062***		
R ²	.091			.402			.456		
Adjusted R ²	.090			.401			.455		
Durbin-watson	1.956			1.960			1.977		

p<.01, *p<.001

p<.001), 가족생활 만족도($\beta=.301$, p<.001), 학교생활 만족도($\beta=.375$, p<.001), 사회 신뢰($\beta=.097$, p<.001), 독립변수인 공동체의식($\beta=.081$, p<.001)은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며 가족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공동체의식, 진로정체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Model 3에서는 성별($\beta=.094$, p<.001), 가족생활 만족도($\beta=.271$, p<.001), 학교생활 만족도($\beta=.328$, p<.001), 사회 신뢰($\beta=.103$, p<.001), 독립변수인 공동체의식($\beta=.057$, p<.001), 매개변수인 진로정체성($\beta=.242$, p<.001)은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며 가족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고, 진로에 대한 이해도와 정체성이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Model 2의 공동체의식과 행복감의 영향력이 매개변수로 인해 Model 3에서 두 변수 간 영향력이 감소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81 \rightarrow .057$). 이는 공동체의식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은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3.4.2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

고등학생의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먼

저,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민의식이 진로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Model 1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beta=-.063$, p<.001), 가족생활 만족도($\beta=.120$, p<.001), 학교생활 만족도($\beta=.196$, p<.001), 독립변수인 시민의식($\beta=.083$, p<.001)은 진로정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며 가족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Model 2에서는 성별($\beta=.061$, p<.001), 가족생활 만족도($\beta=.286$, p<.001), 학교생활 만족도($\beta=.364$, p<.001), 사회 신뢰($\beta=.044$, p<.05), 독립변수인 시민의식($\beta=.161$, p<.001)은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며 가족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고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민의식, 진로정체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Model 3에서는 성별($\beta=.076$, p<.001), 가족생활 만족도($\beta=.257$, p<.001), 학교생활 만족도($\beta=.317$, p<.001), 사회 신뢰($\beta=.052$, p<.001), 독립변수인 공동체의식($\beta=.141$, p<.001), 매개변수인 진로정체성($\beta=.239$, p<.001)은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며 가족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고 시민의식 수준이 높고, 진로에 대한 이해도와 정체성이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Table 4. The effects of civic consciousness, career identity, happiness

Variable	Model 1 career Identity			Model 2 happiness			Model 3 happiness		
	B	β	t	B	β	t	B	β	t
Gender	-.070	-.063	-3.547***	.076	.061	4.274***	.095	.076	5.575***
Family life satisfaction	.098	.120	6.190***	.264	.286	18.373***	.237	.257	17.201***
School life satisfaction	.152	.196	10.051***	.318	.364	23.264***	.277	.317	20.874***
Social trust	-.009	-.034	-1.612	.014	.044	2.583*	.016	.052	3.209**
Civic Consciousness	.088	.083	3.761***	.192	.161	9.071***	.168	.141	8.307***
Career Identity							.270	.239	16.991***
F	56.878***			416.086***			428.636***		
R ²	.088			.413			.466		
Adjusted R ²	.086			.412			.465		
Durbin-watson	1.967			1.954			1.969		

*p<.05, **p<.01, ***p<.001

유의미하였으며, Model 2의 시민의식과 행복감의 영향력이 매개변수로 인해 Model 3에서 두 변수 간 영향력이 감소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161→.141). 이는 시민의식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은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3.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행복감 간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Baron & Kenny[31]의 매개효과 3단계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개변수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은 Sobel test statistic= 3.482, p<.001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의식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은 Sobel test statistic= 3.059, p<.01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설 3>과 <가설 4>는 채택되었다.

Table 5. Sobel test

Path	Sobel test Statistic	p
Sense of Community→ Career Identity→Happiness	3.482	.000
Civic Consciousness→ Career Identity→Happiness	3.059	.002

p<.01, *p<.0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 및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독립변수를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데이터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조사대상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959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고등학교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각각 고등학교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β=.081, p<.001)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급별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중심으로 행복감을 연구한 결과에서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3,13,32].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청소년이 타인을 배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등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여 준다[33]. 이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인적·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청소년은 시민의식을 잘 인지할수록(β=.161, p<.001)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초·중·고)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시민의식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13]. 또한,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민의식과 행복감의 관련성을 살펴본 Lee & Cho[3]의 결과에서도 시민의식이 높으면 행복감도 상승한다고 하여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청소년의 시민의식 척도에서 인권 관련 문항을 토대로 보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한 경험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34].

둘째,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정체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나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진로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진로정체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져 희망적인 미래 생각으로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정체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공동체의식이 높으면 진로정체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35]와 맥을 같이 한다. 중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수록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밝혔다[3, 36]. 전라북도 B군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공동체의식인 지역친밀감과 소속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밝혀[37] 본 연구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할 결과에서 공동체의식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해[1]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진로정체성은 공동체의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은 공동체의식을 통해 자신의 동기를 확인하고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목표, 흥미, 능력을 판단하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결국, 고등학생 청소년은 집단 구성원과 협력해 살아가는 올바른 공동체의식을 갖추게 되면 자신의 진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진로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고등학생의 진로정체성이 시민의식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정체성 변인의 부분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 평등한 사회이며 인권이 존중되고 믿을수록 청소년은 분명한 인생 목표를 계획해 진로정체성이 높아지고, 진로정체성이 높아지면 행복감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정체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19, 34]에서 청소년이 인권을 존중받았다고 느끼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넉넉한 자원을 보유할수록 진로정체성이 증진되고[25],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38]. 즉, 시민의식이 사회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 청소년의 진로 목표와 계획 등도 새롭게 구성하기 때문에 진로정체성도 흐름에 맞게 확립되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자신이 구성원으로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등학생 자신의 개인적 권리 일부를 희생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있다면 기꺼이 동참할 수 있다는 인식확산을 위한 공동체의식 강화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3]. 고등학생들에게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을 그룹들끼리 설정하여 발표해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공동체에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봉사활동 활성화, 조별 체육활동과 다양한 공연 활동, 집단상담 등 집단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동체의식을 심어줘 고등학교 청소년의 행복감을 함양시킬 것을 제안한다.

둘째, 고등학생의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 공정한 사회 만들기, 인권교육은 학교나 가정 및 지역사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기적인 사회보다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만들어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을 위해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정직한 시민의식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가 ‘은따(은근히 따돌림당하는 것을 줄임말)’를 당하는 상

황에 놓여 있을 때 방관자로 있지 않고 '안된다'고 말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식개선 운동을 제안한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문제상황을 관찰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3]. 이를 통해 고등학생들은 서로 다름을 알게 되고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게 되어 높은 시민의식을 형성하여, 이후 성인이 되면 이 나라를 공정한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다.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해 가정과 사회에서 인권 존중, 남녀 평등한 관계, 공정한 사회 구현과 관련된 자료를 특별로 조사해 서로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하며, 이 속에서 스스로 행복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더불어 고등학생은 집단상담과 역할 바꾸기 활동을 통해 시민의식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현재 중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하여 고등학생에게도 적용해 진로계획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진로정체성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은 학교 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지도하에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루지길 바란다. 더불어 외국의 학교와 교환학기제를 적용하여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꿈을 확장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에 주목받을 직업군에 속한 근로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직업의 특성과 전망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산업체와 연결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교육이 고등학생 눈높이 맞게 탈바꿈해야 한다. 또한,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요구하는 직업군만 선호해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에 몇 년씩 매달려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도록 고등학생 시절부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게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 이처럼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나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은둔형으로 사는 청소년이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Z세대 10대 청소년

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종단이 아닌 횡단조사 자료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종단연구로 살펴보기 바란다. 둘째, 본 연구는 2차 자료인 패널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행복감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못하고 몇 개의 변수로 한정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적용해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조사대상자의 내면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질적과 양적을 통합한 연구를 진행하여 서로 부족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 및 진로정체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낸 것이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및 시민의식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진로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개입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강화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실천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EFERENCES

- [1] J. J. Park (2013). Aristotle's conceptions of happiness.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69), 1-23.
DOI : 10.15841/kspew..69.201309.322
- [2] R. Veenhoven (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5), 605-629.
- [3] M. H. Lee & O. S. Cho (2023). The effects of civic consciousness and sense of community on happiness in adolescent: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1(5), 97-107.
DOI : <https://doi.org/10.22678>
- [4]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3). <https://www.law.go.kr/LSW/lSc>.
- [5]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22). *Korea's Social Trends 2022*.

<https://kostat.go.kr/wnsearch/search.jsp>

- [6] H. R. Han & J. M. Lee (2018). A study on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of the adolescent's subjective happiness: Focused on Alderfer's ERG theor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6(1), 103-117.
DOI : 10.7466/JKHMA.2018.36.1.103
- [7] J. G. Yuh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and Happines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xploring Self-esteem and Sense of Community i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8(1), 29-48.
DOI : 10.36697/skya.2022.8.1.29
- [8] T. Avedissian & N. Alayan (2021). Adolescent well-Being: A Concep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30(2), 357-367. DOI : 10.1111/inm.12833
- [9] S. R. Lee., E. K. Kim & H. S. Yoon. (2015). The Effect of Happiness in the Adolescents on the Youth Developments in Korea.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6(4), 413-438.
DOI : 10.16881/jss.2015.10.26.4.413
- [10] H. Hwang & Y. H. Kim (2017).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n Happiness Determinants among Domestic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7), 1-28.
DOI : 10.21509/KJYS.2017.06.24.7.1
- [11] M. H. Kim., J. H. Moon & K. O. Seong (2014). A Study on Subjective Well-Being and Influential Factors Across Different Life Cycles in Adulthood: Application of Alderfer's ERG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4(4), 857-875. UCI : G704-000573.2014.34.4.009
- [12] A. B. Nickerson & R. J. Nagle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35-60.
- [13] Y. B. Kang & J. M. Lee (2022). The effect of career resilience on youth's subjective happ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and citizenship. *Journal of Youth Welfare*, 24(3), 61-89.
DOI : 10.19034/KAYW.2022.24.3.03
- [14] Y. W. Kee., S. H. Kim & N. S. Kim (2013). An analysis of the sungmisan village model as a community wellbeing paradigm: Using grounded theory method.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7(1), 295-320.
UCI : I410-ECN-0102-2013-350-002050882
- [15] D. W. McMillan & D. M. Chavis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16] G. Y. Kang & Y. M. Jang (2013). A Study on Sense of Commun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1), 97-123.
UCI : I410-ECN-0102-2022-300-000530604
- [17] M. W. Chi & T. Y. Cho (2012).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activity on leisur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6(6), 145-165.
UCI : G704-000001.2012.36.6.013
- [18] D. J. Hwang., H. Song & S. H. Kim (2015). The Influence of Human Right Education on Adolescents' Awareness of Human Right - Focusing on the mediator effect of self-esteem -. *Korean Youth Research*, 22(10), 77-100. UCI : G704-000387.2015.22.10.008
- [19] S. Y. Lee (2022).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Friendly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Youth Research*, 29(8), 509-529.
DOI : 10.21509/KJYS.2022.08.29.8.509
- [20] A. Ross (2007). Multiple identities and education for active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5(3), 286-303.
DOI : 10.1111/j.1457-8527.2007.00380.x
- [21] UN (1994).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
- [22] H. J. Lee (2016).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Youth: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and Social Capital Factors. *Studies on Life and Culture*, 39, 151-186.
- [23] H. J. Kim & H. S. Park (2019). A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s' career identit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0(3), 1079-1088. DOI : 10.22143/HSS21.10.3.78

- [24] J. L. Holland., D. C. Gottfredson & G. Power (1980). Some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 [25] E. J. Park., Y. R. Lee & S. H. Lee (2016). The effects of adolescents` social capital on their career identification by parents` income strata: Focusing on third year middle schoolers. 23(5),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DOI : 10.21509/KJYS.2016.05.23.5.237
- [26] C. Y. Gong & Y. J. Choi (2021).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areer ident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31(1), 387-408. DOI : 10.21024/pnuedi.202103.31.1.387
- [27] C. H. Yoon & S. Y. Han (2015). The Effects of Self-esteem,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on Career Identity of International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145-170. UCI : I410-ECN-0102-2015-300-002113773
- [28] J. H. Cha & S. I. Choi (2017). Mediating effects of career 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Happiness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6), 1045-1058. DOI : 10.22143/HSS21.8.6.70
- [29] Y. K. Shin (2010).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career-related variables. Master`s thesis at Ajou University.
- [30]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20). <https://www.nypi.re.kr/contents/mainpage.do>
- [31]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32] J. I. Yuh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and happines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xploring self-esteem and sense of community i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8(1), 29-48. DOI : 10.36697/skya.2022.8.1.29
- [33] T. R. Kim (2023). Effects of adolescents` family strength and community spirit on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9(1), 41-68. DOI : 10.36697/skya.2023.9.1.41
- [34] S. J. Park & K. A. Park (2020). The effect of youth`s respect for human rights on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2), 349-365. DOI : 10.22251/jlcci.2020.20.22.349
- [35] Y. M. Kim & B. W. Kim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lect,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Identit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1(4), 73-202. DOI : 10.18612/cnues.2020.41.4.173
- [36] S. A. Kang & H. R. Nam (2022). The Influence of self Esteem, Career Identity, Grit on Nursing Students` Subjective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6(2), 41-51. DOI : 10.34089/jknr.2022.6.2.41
- [37] S. Ham (2017). The sense of community among young people in rural areas the spirit of happiness. Master`s thesis at Jangshin University.
- [38] S. H. Son., Y. S. Kang & J. Y. Kim (2019). The Effects of Vocational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on their Happines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8(2), 323-341. DOI : 10.23944/jsers.2019.06.58.2.14

장 각 자(Gag-Ja Jang)

[정회원]



- 2017년 2월 : 한세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심리상담학과(아동청소년학 석사)
- 2017년 10월~현재 : 한세대학교학 교상담센터연구원

- 관심분야 : 가족, 아동, 청소년 집단상담
- E-Mail : jkj1277@naver.com

김 미 현(Mi-Hyun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한국성서대학교 선교 학과(신학사)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심리상담학과(가족상담학석 사)
- 2015년 3월~2017년 2월 : 온새미 로 심리상담센터 상담사

- 2022년 1월~현재 : 카페밴트 심리상담소장
- 관심분야 : 가족, 부부, 성인, 아동, 집단상담
- E-Mail : jmes5023@naver.com

김 나 연(Na-Yeon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가족상담석사)
- 2021년 2월~현재 : 온세미로 심리 상담연구소

- 관심분야 :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집단상담
- E-Mail : perfect626@hanmail.net